

## 같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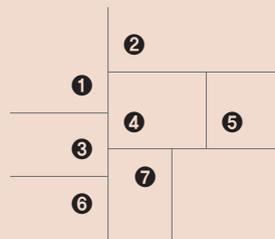
: 역사에 길을 묻다

청와대 뒤편에는 궁(宮)이되 궁이 아닌 곳이 있다.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서울에 이름난 궁궐들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달리 오랜 세월 홀로 조용히 자리하고 앉아 사람들이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곳, 바로 칠궁이다.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 비밀의 궁

## 칠궁 七宮



- ① 옥상궁, 연호궁 현판 ② 덕안궁
- ③ 경우궁 ④ 옥상궁, 연호궁과 이안청 ⑤ 저경궁
- ⑥ 저경궁 ⑦ 경우궁



풍월헌, 송죽재



### 죽은 이들을 위한 궁

서울의 5대 궁궐은 모두가 잘 아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경희궁이다. 불과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5대 궁궐 외에도 크고 작은 궁들이 많았다. 그중 하나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운현궁을 비롯하여 현재 공예박물관이자 옛 풍문여고였던 자리에 있었던 안국동의 별궁,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던 영희전(궁보다 더 높은 등급의 궁), 광해군이 세자가 되기 전에 살았다고 하는 이현궁,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이 살았던 도정궁과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이 살면서 철종이 태어났던 누동궁 등이 그곳이다. 각 궁에 기거했던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왕족들이 기거하던 궁들이다. 즉, 대군이거나 왕의 부모, 왕세자가 아닌 왕자와 공주 등이 살았던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많은 궁들이 서울 내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6.25를

겪으며 훼손되거나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몇 안되는 궁중에서 다른 궁들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궁이 하나 있다. 바로 왕을 낳은 여인들의 신주를 모신 칠궁(七宮)이다.

### 일곱 왕의 어머니

조선에는 27명의 왕들이 있다. 그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이 종묘다. 다만 종묘에는 오직 왕과 함께 정실 왕비의 신주만 들어갈 수 있었기에 왕비가 아닌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들은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사당을 짓고 신주를 모셨다. 그렇게 지어진 사당은 한양 이곳저곳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다 그 신주와 사당들을 하나둘 옮겨서 한곳에 모으게 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지금의 칠궁이다. 현재 칠궁 자리에 처음 있었던 것은 영조(조선 21대)가

##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재실\_심락당

어머니(사친 私親)이자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를 위해 세운 사당인 육상궁(毓祥宮)이었다. 이후 순종 융희 2년인 1908년에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연호궁(延祐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이 옮겨와 육궁(六宮)이 되었고, 1929년 덕안궁(德安宮)까지 옮겨와 현재의 칠궁이 완성되었다. 육상궁이 숙빈 최씨의 사당이듯이 나머지 여섯 개의 사당 역시 임자가 있다. 연호궁은 영조의 맏아들이자 진종으로 추증된 효장세자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궁이다. 선희궁에는 영조의 후궁이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경우궁은 순조(조선 23대)의 어머니이자 정조의

후궁이었던 수빈 박씨의 사당이다. 사당 중 가장 오래된 저경궁은 조선 14대인 선조의 후궁이자 왕으로 추존된 원종의 어머니 인빈 김씨의 사당이다. 대빈궁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친모인 희빈 장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대빈궁은 다른 사당과 달리 기둥이 둥글고 조금 더 화려하며 하단부 기단도 단이 조금 높은데, 그 이유는 희빈 장씨가 폐위되기는 했으나 한때 중전이었던 것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칠궁에 합류한 덕안궁은 영친왕의 어머니이자 고종의 후궁인 엄비의 사당이다.

## 철궁,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다

현재 철궁은 7개의 사당과 그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치는 경복궁 뒤편 청와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서쪽으로 인왕산이, 북쪽으로는 북악산이 펼쳐져 있는 고즈넉한 곳이다. 내부의 사당들은 처음에는 ‘ㄷ’ 형태로 늘어서 있었으나 현재는 왼쪽에 네 개의 사당이 각기 독립해 서로 접하여 서 있는 ‘ㄱ’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1969년 발생한 1.21 사건(김신조 사건) 당시 철궁 인근을 통해 청와대로 북한의 특수공작원이 침투한 것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위해 형태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한다. 형태가 변경되었기는 하나 7개의 사당들과 함께 재실(풍월헌, 송죽재, 삼락당), 냉천전 등의 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으며 그 주위로 작은 뜰과 연못, 수로, 돌담과 소나무, 정자가 어우러져 우리 전통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일반 관람이 금지되었던 탓에 그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잘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양 곳곳에 각기 자리했던 사당들이 하나둘 옮겨가 현재의 철궁이 되었으나 아직도 서울 내에 몇 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선희궁 터였던 국립서울맹학교 내에는 아직도 선희궁 일부와 표석이 남아 있으며, 한국은행 후문 부근에는 저경궁 터였던 것을 알려주는 표석이 남아있다. 덕수궁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들어선 자리는 덕안궁 터였다.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았던 철궁의 일곱 사당. 또한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 1.21 사건의 흔적까지 먼 과거부터 근대사까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철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흥미롭고 비밀스러운 여행으로 인도할 것이다. 🍵



냉천  
-  
자연

